

< 제 13 장 >

요 13:1-20 제자들의 발을 씻김

1절 ~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ἀγαπάω) 끝까지(τέλος. 완성)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ἀγαπάω 아가파오)는 감정적 애정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한다. “끝까지”(τέλος 텔로스)는 단순한 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과 목적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구절이다.

< **벧전 1:9** 믿음의 끝은(τέλος 테로스) 곧 영혼의 구원을(σωτηρία 소테리아) 받음이라 >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σωτηρία)을 위한 종말론적(τέλος)인 사랑(ἀγαπάω)이다.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서 완성된다.

발을 씻기신 사건은 단순한 겸손의 교훈이 아니라,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상징적 행위이다. 구원의 길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몸으로 먼저 보여주신다. 높으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을 씻기는 행위 속에 미리 담아 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윤리적 모범을 넘어서, 십자가의 방향을 예고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16절 ‘보낸 자’(πέμπω 펴포) :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ἀπόστολος 아포스톨로스) : 그 메시지를 위임받아 선포하도록 택한 받은 자.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보내는 이의 권위가 있어야 파송이 성립하고, 파송된 자가 있어야 보내는 이의 뜻이 역사 속에 드러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셨고,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는 위임의 사술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다. 보내심은 곧 사명의 연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의 존재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자기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내는 자이다.

그러므로 파송의 핵심은 권한만이 아니라 일치에 있다.

보내신 분의 뜻과 보냄 받은 자의 삶이 일치될 때, 그 보냄은 참된 권위를 갖게 된다.

20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보내신 분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권위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보낸 이의 뜻과 일치될 때 나타난다.

사역자의 권위는 스스로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러난다.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자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낸 자’(sender)가 있어야 ‘보냄을 받은 자’(sent one)가 존재하고, ‘보낸 자’(sent one)가 있어야 ‘보낸 자’(sender)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도들을 택하여 보내신 예수님과 그 부르심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는 혼연일체의 관계이다. 이 말씀에는 ‘보냄을 받은 자’(sent one)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 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에 대한 권위는 자신이 스스로 간직하고 나타내야 한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보내신 분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권위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보낸 이의 뜻과 일치될 때 나타난다.

사역자의 권위는 스스로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뜻을 앞세우면 권위는 무너지고, 비록 연약할 지라도 보내신 분의 뜻에 충실하면 그 안에서 참된 권위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중심은 자기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전달에 있어야 한다.

요 13:21-30 가롯 유다의 정체

가롯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주권적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그 부름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한 매개체로서의 선택이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아셨다.

(마 26:24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요 6:64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배신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돌발 사건이 아니라 예정된 길이었다.

중요한 것은 ‘알고도 택하셨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배신조차 하나님 구속의 섭리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반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12:6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유다의 정체성)

겉으로는 제자였으나, 내면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외적 소속이 곧 내적 충성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한 자는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게 하실 때, 유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줬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강조는 그의 직책이 ‘돈궤를 맡은 자’, 곧 관리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재정 관리자로 있었다. 그러나 그 직책 속에서도 이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 탐욕은 점차 그의 존재를 잠식하였다.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위치와 역할은 외적인 것이지만, 방향과 중심은 내적인 것이다.

유다는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마음은 이미 다른 주인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사탄의 역사>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넣었다’는 표현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생각이 먼저 씨앗처럼 심어졌음을 보여준다.

- 사탄은 먼저 대상자에게 교만, 시기, 탐욕, 거짓과 같은 생각을 마음에 심고(유혹), 그것이 자라도록 그 사람의 상황과 때에 맞추어 영혼을 지배하여 행하게 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다. 마귀는 그 생각을 충동질한 것이다.

- 사탄은 우리에게 죄지를 구실을 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의지가 약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생각이 완고해서 또한 그 구실에 동조하기에 결국 그 마귀에게 지배되어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 21:1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충동은 사탄에게서 왔으나, 선택은 다윗의 책임이었다. 인간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의지의 문제이다. 의지가 약하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완고해질 때,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배로 나아간다.

여기서 죄의 진행 구조가 드러난다. 유혹 → 동조 → 실행 → 지배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내면을 장악하게 된다.

13:27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지라.

처음에는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동조였으며, 마지막에는 지배였다. 이것이 죄의 진행 구조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경우는 단순한 개인적 타락을 넘어선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사용된 도구였다. 그렇다고 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선택은 그의 것이었고, 그 결과 또한 그의 것이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는 빛 가까이에 있었으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다는 경고이며, 생각의 단계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지배에 이른다는 영적 원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배신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배신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의 어둠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 계획 안에서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한 도구로 사용되는 매개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분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자로 쓰임 받는가는 인간의 방향과 선택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예정의 선언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경고이기도 하다.

요 13:31-35 새 계명을 주심.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1-33절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에 하신 말씀이다.

배신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선언하신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과 죽음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 부르신다.

‘지금’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영광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화”(δοξάζω 독사조)는 단순히 칭송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 참된 본질과 위엄이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 드린 ‘영광’과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영광’이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심으로(사역의 완성)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며, 순종의 절정에서 드러나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이다.

3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τεκνία)라고 부르신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떠나실 것을 제자들을 향해 남기시는 사랑의 언어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나, 그분이 가시는 길은 대신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십자가는 동행의 길이 아니라 대속의 길이기 때문이다.

구속은 위임될 수 없고, 고난은 분담될 수 없으며, 속죄는 대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오직 그분만이 가셔야 할 길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사명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다. 바로 이 배경 위에서 “새 계명”이 주어진다.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ἀγαπάτε ἀλλήλους 아가파테 알렐로우스)

“계명”(ἐντολή 엔틀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명령이다.

여기서 “사랑하라”(ἀγαπάω 아가파오)는 감정적 호의가 아니라 의지적 헌신이며, 자기 희생을 포함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붙는다.

예수님의 ‘아가파오’는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아가파오’ 역시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책임지는 사랑이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책임이며,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요21:15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ἀγαπάς)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φιλεῖ)’로 대답한다. 베드로는 ‘아가파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었다. 그는 아직 그 자리까지 자신을 두지 못했던 것이다.

이 장면은 ‘아가파오’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내어주는 사랑임을 보여준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아가파오)”. 이는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적 사랑이다.

요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드러난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랑의 대부분은 동사형 ‘ἀγαπάω’(아가파오)이다. 이는 행하라는 명령이다.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가페’(ἀγάπη)는 명사형으로, 그 사랑의 본질과 상태를 말한다.

복음서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며, 서신서의 사랑은 존재 안에 형성된 사랑이다.

마음에 품는 것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가파오’이다.

<예수님에 대한 ‘아가파오’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이 ‘아가파오’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줌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가파오’이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징은 기적이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직분이나 지위도 아니다.

서로를 향한 ‘아가파오(ἀγαπάω)’, 곧 희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제자의 표징이다.

외적인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낸다.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를 구분하신다.

기적은 감탄을 일으킬 수 있으나, 사랑은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은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계승하는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준은 십자가였다.

곧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의 사랑이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데서 완성된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순종에서 드러났고, 제자들의 영광은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 안에서 드러난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자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요 13:36-38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심. (참조. 18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의 열정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이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부정이 아니라 드러냄이다. 베드로 안에 있는 진심은 인정하시되, 그 진심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밝히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하였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고, 감정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진심과 지속성은 다르다.

순간의 결단은 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외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끝까지 지탱할 내적 상태를 보신다

그동안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은 하였으나, 고난받는 메시아로는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랍비요, 선지자였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으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구원자로서의 이해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외쳤던 자들이었고,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은 진실했지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었다.

경험은 있었으나, 해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이 십자가까지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메시아 이해’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영광의 메시아는 받아들이지만, 고난의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며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아직 십자가를 견딜 만큼 깊지 않음을 아셨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베드로 개인의 실패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적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단과 의지, 열정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

사람의 각오는 순간적으로 강할 수 있으나,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자기 의지에 의존한 믿음은 시험 앞에서 드러난다. 이 믿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다. 부인하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된다. 두려움에 숨어 있던 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결국 순교까지 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들이 되었다. 베드로의 부인은 실패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 이전의 인간적 신앙과 성령 이후의 사도적 신앙을 대비하는 계시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신앙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을 의지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설 능력 또한 준비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인간의 결단은 흔들릴 수 있으나,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무너뜨리시는 대신 오히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음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장면이다.

<요한복음 13장>

십자가 이전에 주어진 마지막 준비의 장이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사랑을 남기셨고, 사명을 남기셨으며,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므로 신앙은 열정으로 시작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섬김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이어지며,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길을 여셨고, 제자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